

## 나의 자식교육

※ 이 글은 매일경제신문 2000년 12월 02일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 건강한 꿈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라 ◀◀◀

내가 자라고, 또 자식들을 키워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집안에는 여느 집처럼 곱게 표구된 액자속에 담겨있는 가훈같은 것이 없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쓰여진 그 흔한 액자 하나도 걸어놓은 기억이 없으니 말이다. 자식농사는 말로 짓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짓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했고, 자연스레 그것은 나의 교육관으로 자리잡았다.

나는 성년이 될 때까지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 속에서 자랐다. 우리 아버지는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할 만큼 어질고 착한 분이셨다. 손해를 보면서도 늘 양보하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곤 하지 않았으며, 남에게 사기를 당하여 재산을 왕창 날리기도 하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협심이 강해서 불의를 보고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으셨다. 내가 어릴 적 우리 마을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마름출신들이 세도를 부리며 마을사람들, 특히 소작인들과 곧잘 싸움을 일으키고 송사도 벌였는데 그때마다 자작농이셨던 아버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소작농 편에 서서 싸우다가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셨다.

이러한 아버지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담아 『너희 아버지처럼 살면 절대 안된다. 남의 일에 나서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말아라』고 설교를 하곤 하셨다. 하지만 결국 나는 특별히 교육이랄 만한 말씀 한마디 주시지 않은 아버지의 성품을 고스란히 닮아버렸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또 다른 동력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그들이 심어준 건강한 꿈이었다. 가난했고 때로는 집안싸움도 없지 않았지만 막내인 나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사랑은 각별했다. 착하고 똑똑하니까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암시와 함께,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가족들은 내게 보여주었다.

가난때문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곤 했던 나였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던 가족들의 믿음과 그것에 근거한 꿈은 어려움속에서도 자신을 잃지않는 용기가 되었고, 자칫 그릇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나를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러한 가족들의 믿음과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를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다.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밖에서 도둑질을 한 적은 없었지만 나는 가끔 어머니의 주머니를 뒤지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어머니의 묵인속에 몇번인지는 몰라도 도둑질에 성공한 나는 과수원 복숭아를 판 돈을 훔쳐 하모니카를 샀다.

돈은 없어지고 나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으니 범인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그런데도 내가 잡아떼니까, 부모님은 어쩔수 없이 나와 작은 형에게 혐의를 두고 다그치기를 계속했다.

작은 형이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시치미를 뚝고,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안방에 누워있던 내가 자는 줄 알고 부모님은 상처입은 마음을 풀어놓았다.

『영감, 우리 막내가 흠치는 버릇만 해도 문젠데, 형이 뒤집어쓰는 마당에 저렇게 시치미를 떼니 큰 도둑놈이 되거나 앓을까 걱정이예요.』 마흔이 넘어 막내를 본 어머니의 안타까운 푸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말씀하시던 부모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애정섞인 걱정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눈물로써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두 아이를 키우는 철학이 되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만큼 나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두 아이가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길 줄 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부나 권력을 중시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답게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대신 주말마다 시골로 아이들을 보내고,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낀 날이면 학교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내가 결코 좋은 아버지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치를 한답시고 나는 두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했다. 학교로 데리러 가는 것은 고사하고 입학식이나 졸업식도 함께 하지 못한 아빠에게 딸아이는 지금도 불만을 털어놓는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잘 자라줘서 아버지된 나로서는 기쁘고 고마울 뿐이다. 아들녀석은 고등학교 2학년때 그릇된 길로 들어설 뻔했다가 제 자리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아들녀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건강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발이나 호기심으로 혹은 유혹에 못이겨 발을 헛디디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려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내게 주었던, 그리고 내가 두 아이들에게 주었던 건강한 꿈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더 밝은 미래를 여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